

교육공동체 나다 주말강좌  
2018년 11월

# 휴먼러니저즘

참가안내

## [심리] 사람 마음속 비밀을 찾는 특별한 실험실

★ 심리 실험들을 통해 보는 마음 작동 원리

## [역사] 문명 속으로 뛰어든 그리스 신들

★ 현재의 나와 연결된 또 다른 신화를 만나다

## [철학] 우리 안의 근대성

★ 내 삶을 규정짓는 근대철학 이야기



교육공동체 나다 주말강좌  
“휴머니즘”에 참가하시는 방법

※ 후원회원 가입은 나다 홈페이지 <http://nada.jinbo.net> “후원하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1. 참가신청

참가신청 연락을 해 주세요

〈새로 참가하는 경우〉

전화 또는 나다 홈페이지 “주말강좌-휴머니즘” 게시판에서 신청 글 작성.

▶ 알려주실 것 : ①참가자이름 ②휴대전화 ③신청강좌 ④회원가입여부 ⑤입금자명

〈앞 과정과 연결해 계속 참가하는 경우〉

이전 과정에 이어 계속 참가하시는 분들께 새 과정 참가 여부를 먼저 여쭙고 신규 참가 접수를 시작합니다.

2. 후원회원 가입 선택

후원회원은 주말강좌(휴머니즘)와 방학특강 강좌후원금이 20% 할인됩니다.

▶ 후원회원 : 월 회비 1만 원 이상을 납부. 홈페이지 상단 “후원하기”에서 양식 작성.  
(※ 홈페이지에 글을 쓰기 위한 로그인 회원과는 별개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3. 강좌후원금 납부

[2018년 11월 휴머니즘] 강좌후원금

초등부 심리 10만원(5강), 중등부 역사 10만원(5강), 고등부 철학 20만원(10강)

▶ 회원은 80%만 납부

▶ 납부 계좌 : 국민은행 543037-01-005880 교육공동체나다

---

4. 그 밖에

★ 참고하실 사항

1. 강의는 주 1회, 2시간입니다.

2. 강좌기간 고등부는 1주의 휴강기간이 있습니다. 휴강날짜는 참가자들과 논의하여 결정합니다.

★ 강좌가 열리는 곳

교육공동체 나다(마포구청역)

서울시 마포구 망원로 7길 44(망원2동 479-28) 3층

# 심리 초등

## 사람 마음속 비밀을 찾는 특별한 실험실

★ 심리 실험들을 통해 보는 마음 작동 원리

참가자	12~13세 초등부 청소년
개강	<일요강좌> 11월 4일~12월 2일 오전 10시 30분
오리엔테이션	강좌 첫 참가자에 한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첫날 수업이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와주세요!

여러분은 혹시 ‘심리학’에 관심이 있나요? SNS에서 쉽 없이 공유되는 심리테스트들과 MBTI 같은 사람들의 성격을 분류하는 검사들을 떠올려보면 인간의 모든 행동, 마음과 머릿속의 활동들을 연구하는 심리학은 많은 이들의 흥미를 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심리’라는 말만 보면 눈을 반짝이는 걸까요? 아마 심리학에 대한 이런 관심은 나 자신을 알고 싶어서 혹은 다른 누군가를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 때문이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실험들의 심리학자들도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체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할까요?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자신의 말이 틀렸을 때 계속해서 우기는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는 나쁜 것들에 쉽게 중독되어버릴까요? 사람을 쉽게 조종할 수는 없을까요? 2차 세계대전의 독일사람들은 왜 나치가 된 걸까요? 그럼 우리는 누구나 끔찍한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걸까요?

수많은 질문, 사람들이 왜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그 질문들에서 심리 실험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실험들은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비밀을 하나둘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비밀은 사람을 이해하게 해주기도 했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기도 했지만 가끔은 사람을 조종하는 데 사용되었다나요.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마음의 작동 원리를 꿰뚫고 나를 움직이려고 하는 힘들이 이 세상에는 아주 많아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자면 하루에도 수십번 보게 되는 광고 속에도, 우리가 아주 긴 시간을 보내는 학교 안에도 심리학의 비밀들은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리를 스스로 파악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심리학자들이 비밀을 풀기 위해 했던 실험들을 통해서요. 이곳에 발을 딛는 순간 여러분 역시 실험에 참가하게 될 거예요. 하얀 가운을 입은 박사와 연구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네요. 이 실험의 결과 끝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다 실험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

## 1강\_ 종소리와 파블로프의 개 : 사람을 움직이는 몇 가지 방법

과학자 파블로프는 개에게 먹이를 주기 전 종을 울렸어요. 그러자 어느 순간부터 개는 먹이가 나오기 전 종소리만 듣고도 침을 흘리기 시작하더군요. 이후 스키너라는 심리학자는 상자 속에 쥐들을 가두어 어떤 실험을 하고 난 뒤 확신에 가득 찼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만 달콤한 보상을 준다면 쥐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얼마든지 길들일 수 있다고 말이지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솔깃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럼 우리 말썽꾸러기들도 얼마든지 양전하고 착한 아이가 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사람의 마음을 과학적으로 설명했던 스키너의 실험을 함께 살펴봅시다!

## 2강\_ 네 가면은 몇 개니? :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

영화나 만화에 등장하는 멋진 주인공이 악당의 공격을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일이죠? 주인공의 주변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방어막이 악당의 공격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저런 투명한 방어막이 있다면 믿을 수 있나요? 여리디여린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은 모두 방어막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음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면 나도 모르게 자동 발동되는 그런 훌륭한 시스템이랍니다. 하지만 방어막이 영성하게 만들어져 있다면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 3강\_ 외계인에게 선택받은 사람들 : 사람들의 믿음은 어떻게 움직일까?

“1954년 12월 21일, 세상은 대홍수로 멸망할 것이다!! 신 사난다를 믿는 자들은 커다란 우주선을 통해 구원받을지니...” 외계인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계시에 따라 자신의 재산도 가족도 다 버린 사람들이었지요. 그 소식을 들었지만, 전혀 믿지 않았던 페스팅거라는 미국의 심리학자는 궁금해졌습니다. 12월 21일 예언의 순간에 비도 내리지 않고, 우주선도 찾아오지 않는다면 돌아갈 곳도 없어진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2018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보면 아마 멸망은 오지 않은 듯하네요. 페스팅거가 찾아갔던 그 계시의 현장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 4강\_ 행복한 쥐들의 나라 : 중독의 원인을 찾아서

중독은 오래전부터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는 골칫거리였습니다. 술, 담배, 마약, 도박 같은 것들에 중독되어 일상생활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리 곳곳에 널려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요즘은 어린이,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올라왔어요. 설 새 없이 욕을 내뱉으며 좀비 같은 표정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떠날 줄을 모르는 이 사람들. 게임의 자극성과 폭력성이 이 사람들을 중독 상태로 이르게 했다는 어른들 앞에 한 심리학자가 나타났습니다. 쥐 공원에서 일어난 일을 들려주겠다는 이 사람은 중독의 원인이 게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게임이 아니면 중독의 원인이 어디 있다는 걸까요?

## 5강\_ 밀그램 박사의 못된 실험 : 우리 마음속에도 악마가 숨어있을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사람들은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단지 히틀러와 몇몇 간부들이 아닌 독일의 국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나치를 따르며 열심히 일했다는 사실이 커다란 충격을 가져왔기 때문이죠. 내 이웃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악마 같은 짓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나요? 혹시 사람들에게 마음속에는 악마가 언제든지 튀어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마찬가지로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밀그램 박사는 사람들의 본심을 알기 위한 실험을 하나 고안했어요. 조심하세요, 이 실험의 결과를 알게 된다면 조금 아플지도 몰라요.

# 역사 중등

## 문명 속으로 뛰어든 그리스 신들

★ 현재의 나와 연결된 또 다른 신화를 만나다

참가자	14~16세 중등부 청소년
개강	<일요강좌> 11월 4일~12월 2일 오후 1시
오리엔테이션	강좌 첫 참가자에 한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첫날 수업이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와주세요!

사람들은 신화를 그저 상상 속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이나 황당한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이었다면 믿어지시나요. 실제로 신화에는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세계가 상징의 형태로 숨어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화는 어찌면 상상이 아니라 역사의 영역인 셈입니다. 또한 서양 사상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고대 그리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리스 신화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는 꼭 필요합니다. 좋은 싫든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미 서구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결국 우리들 자신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니까요. 결국 수많은 상업적인 매체처럼 접근한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 셈입니다.

단순한 판타지가 아닌, 신화를 상징으로 바라보고 세계관과 역사로 읽어내는 색다른 상상력의 세계를 준비했습니다. 그리스 신과 영웅들은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유럽 문명을 포함한 현대 문명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고 있을지 신화에 대한 이 색다른 궁금증을 같이 한 번 풀어보지 않으시겠어요?

.....

### 1강\_ 카오스와 코스모스 : 문명의 탄생

제우스 이전의 신들의 모습은 신들이라고 부르기에 너무나 끔찍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자기 자식을 엄마 가이아의 자궁 속으로 다시 밀어 넣은 우라노스, 그런 아버지의 성기를 잘라버린 크로노스, 그러나 그 크로노스 또한 자식들을 우격우격 잡아먹습니다. 우라노스가 잡아먹은 자식들이 머리 50개에 팔 100개를 흔들어대는 괴물이었다면 우라노스를 이해할 수도 있을까요? 머리에 눈 하나가 달랑 달린 키클롭스의 모

습도 기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왜 태초의 신들을 이런 괴물 같은 모습으로 만들었을까요? 거기에 바로 문명탄생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 2강\_ 올림포스의 열두 신들 : 현실에서 신들을 만나다

따지고 보면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포스의 열두 신들도 그리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천하의 바람둥이인 제우스를 필두로 그의 아내 헤라는 질투의 화신입니다. 깡패 아레스,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듯한 여자 바람둥이 아프로디테, 날 때부터 도둑질을 한 도둑놈들의 신 헤르메스, 알코올 중독자 디오니소스 등등... 도대체가 완벽해야 할 신들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으로 인간적인 신들의 모습에서 그리스 신화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엿볼 수 있습니다.

## 3강\_ 트로이전쟁, 진실 혹은 거짓 : 목마 속에 숨겨진 진짜 역사를 찾아서

상상의 영역에 불과하던 트로이 전쟁은 고고학자들의 끈질긴 탐구에 의해 그 실체를 세상에 드러냈고 비로소 역사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잠깐, 그렇다면 에리스가 던졌다는 황금사과도,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파리스의 선택도, 목마 하나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황당한 이야기도 모두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의미인 건가요? 세상에 이런 황당한 전쟁이 또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 트로이 전쟁에 관한 진실과 거짓을 요리조리 찾아내면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을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 4강\_ 시시포스 신화 : 부조리에 관하여

신들을 기만하고 죽음을 피한 시시포스는 신들을 속인 죄로 영원히 산 정상으로 바위를 밀어 올리는 형벌을 수행하게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시시포스는 지금도 자신의 선택과 그로 인해 얻게 된 가혹한 운명에 끝없는 후회를 반복하고 있겠죠. 그런데 후대의 어떤 유명한 작가는 이런 시시포스를 보고 무려 승리자(!)란 평가를 했다고 하네요. 심지어 그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리하여 (시시포스처럼) 승리자가 돼라!'고 말이죠.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시시포스 신화를 통해 우리를 둘러싼 현대사회의 부조리를 찾아봅시다.

## 5강\_ 패륜아 오레스테스, 법정에서 : 모든 여성에 대한 재판

고조할아버지가 썰어서 신들에게 먹이려 했던 증조할아버지는 마부를 속여 장인을 죽였습니다. 증조할아버지는 마부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할아버지와 작은할아버지는 배다른 동생을 죽이고 도망을 쳤고 그 둘은 또 왕위 때문에 서로 대립합니다. 작은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유혹하고 화가 난 할아버지는 작은할아버지의 자식들을 요리해 작은할아버지에게 먹이고 작은할아버지는 분노해서 자기 딸과 잠자리를 가져 임신시킨 후 할아버지에게 보내고 할아버지는 그런 조카딸과 결혼하고 할아버지의 조카딸이자 아내인 여자는 아들이자 남동생이자 사촌이자 조카인 아기를 낳아 버리고... 세상에 무슨 이런 콩가루 집안이 있냐고요? 이 콩가루 집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결국 어머니는 아버지를 죽이고, 자식은 어머니를 죽이게 되는 이 막장스러운 이야기를 둘러싼 재판에 여러분을 배심원으로 초대합니다.



<b>철학 고등</b>	<b>우리 안의 근대성</b>
	★ 내 삶을 규정짓는 근대철학 이야기
<b>참가자</b>	17~19세 고등부 청소년
<b>개강</b>	<일요강좌> 2018년 11월 4일~2019년 1월 13일 오후 3시 30분
<b>오리엔테이션</b>	강좌 첫 참가자에 한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첫날 수업이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와주세요!

우리는 서구 사회가 고안했던 근대적 시간과 공간 안에서, 서구의 근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미 탈근대(post-modern)의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적어도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근대라는 괄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이들은 한국 사회에 대해 전근대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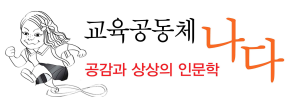
근대의 사상가들은 스스로를 ‘합리적’이라고 자신했지만, 적어도 근대 사상의 많은 부분은 기만적이고 위선적이며 오만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만과 위선과 오만은 고스란히 지금 여기를 사는 우리들의 생각 속에도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그 시절의 철학을 되새겨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근대의 철학을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근대적 사고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것은 그런 사고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서구 근대의 철학을 공부하는 것은 결코 그들의 지혜를 새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속에 숨어있는 근대성의 정체에 다가서고 그런 후에 넘어서기 위한 과정입니다.

.....

**1강\_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 변화에 대한 고대 철학자들의 생각**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전철처럼 달려가고, 흐르는 시간에 따라서 세상도 변하고 내 몸도 마음도 변해가는 것을 누구도, 절대로 막을 순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기대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무(無)를 향해 달려가는 변화의 수레바퀴를 부정하고 싶었던 인간들의 욕망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 2강\_ 너 자신을 알라 : 플라톤, 철인의 정치를 꿈꾸다

이 세상에 '진리'라는 것이 있을까요? 혹 그것이 있다고 해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을 찾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줄 수나 있을까요? 철학은 진리를 찾으려는 무모한 시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 게 있을 턱이 없다는 수많은 회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리는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만약 진리를 알고 있는 자가 존재한다면, 그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진리로 가는 길 입구에 놓여있는 이정표조차도 읽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를 그저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가 정말 진리를 아는 자가 맞는지, 그가 아는 것이 정말 진리인지, 누가 보증해줄 수 있을까요?

## 3강\_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 데카르트, 나와 세계를 분리하다

이 세상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이 질문에 '나'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근대적인 사람입니다. 어쩌면 참 그럴듯한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네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내가 사라지면 결국 세상도 사라지게 되는 건 아닐까요?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하고도 진정한 소통을 나눌 수 없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오는 이유는 혹시 당신이, 그리고 당신, 또 당신이, 모두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서인 것은 아닐까요?

## 4강\_ 가면 속의 가면 : 흠, 감각의 거리에서 길을 잃다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면을 쓰고 삽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착한 어린이 가면 하나 정도는 꼭 가방에 넣고 다녀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아부하는 가면을 챙겨 두지 않으면 출세하기 힘들다고들 합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게 하려면 누구나 잘난 척 가면 정도는 꼭 갖추고 다녀야 합니다. 여러분은 가면을 몇 개나 가지고 다니나요? 혹 그 가면을 벗으면 실제 얼굴이 드러나나요? 가면 속에, 가면 속에, 가면 속에, 아무리 벗겨도 절대 맨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그 가면이 결국 내 진짜 얼굴인 건 아닐까요?

## 5강\_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 칸트, 계몽에 영혼을 불어넣다

“계몽이란 인간이 스스로 책임져야 할 미성숙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칸트의 이 말을 미성숙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은 새겨들을 지어다! 그대들이 성숙한 어른들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때로 그것이 통제처럼 여겨질지라도) 그대들 속에 있는 무지와 편견 때문이며 따라서 끊임없이 성숙한 어른들에게 배워야 한다. 왜 꼭 그래야 하나고? 그게 세상의 이치니까….

## 6강\_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 : 헤겔, 역사를 끝장내다

세상을 전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먹히는 끝없는 싸움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싸우는 것이 각자의 삶의 목표이고 결국 그 싸움의 시간을 모은 것이 인간의 ‘역사’라 불린다고 말합니다.

당신도 인정받고 싶은가요? 동생보다 더 엄마에게 인정받고, 친구보다 더 교사에게 인정받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잘난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적인, 적어도 모두가 서로의 적이라는 면에서는 동등한, 이 자본주의라는 싸움터가 당신의 유토피아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그러하다면 인간의 역사는 선의의(?) 경쟁이 모든 관계 속에서 불꽃 튀는 이 유토피아를 만나기 위해 흘러왔던 것입니다.

## 7강\_ 약자들의 개똥철학 : 마르크스, 철학을 물구나무 세우다

당신은 강한 사람인가요? 아니 그전에,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힘이 센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약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약한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요? 철학이란 것이 삶을 설명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약자들의 삶은 어떤 철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약자들도 철학을 얻기 위해서는 싸워야만 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세계를 해석하기만 했다. 그러나 문제는 세계를 변혁하는 것이다.” 마르크스라는 철학자는 철학을 그저 가진 자들의 지적 유희에서 무기로 변화시키려고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의 철학에서 약자들의, 우리들의 철학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 8강\_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 프로이트, 무의식을 들여다보다

우리는 흔히 우리 자신을 육체에 갇들어있는 영혼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말은 동시에 우리의 몸이 의식의 조종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여기고 있다는 의미죠. 그러나 우리의 행동을 자세히 지켜보면 의식적으로만 움직여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꽤 오랜 시간 동안 의식을 배반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오랜 시간 동안(특히 ‘근대’라고 불린 시기 동안에) 인간의 의식이 그렇게나 대단한 것으로 여겨졌을까요? 우리는 잠잘 때도 존재한다는 사실이, 왜 그렇게 불편했던 것일까요?

## 9강\_ 슈퍼맨의 비애 : 니체, 철퇴로 철학하다

입시 경쟁에 내몰려 산지도 어언 20년이 다 되어가는 당신, 그 사이 당신은 아마도 분명히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공부를 해야 하는 거지?” 그리고 당신은 우리네 공부가 그러한 것처럼, 그 질문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정해진 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잘 살려고…” 물론 여기서 잘 산다는 것은, 대학이나 직업 같은 물질적 조건을 이르는 말일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철학은 우리 사회의 공부 같은 그런 공부와는 다르다고, 철학 공부를 하는 의미와 가치는 특별하다고…. 하지만 어째서일까요? 철학 공부 역시 자신의 권력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 10강\_ 뷔리단의 당나귀 : 근대와 탈근대의 경계에서

너무너무 배가 고프는 당나귀가 있었습니다. 그 당나귀가 하필 두 개의 비슷해 보이는 건초더미를 발견했습니다. 한쪽의 건초더미에 다가가면 다른 쪽의 건초더미가 맛있어 보였습니다. 다른 쪽의 건초더미에 다가가면 또 다른 쪽의 건초더미가 맛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다 당나귀는 결국 두 건초더미 사이에서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근대 철학을 공부한 후 근대적 사고가 가진 딜레마를 이해했다면, 그리고 그 딜레마가 그저 어려운 숙제 같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괴롭히는 현실의 폭력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당신은 당연히 그것에게서 벗어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이렇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뷔리단의 당나귀처럼 서성이고 있을 뿐입니다. 머무르면서 나는 벗어나고 있다고 상상하는 자들 속에 혹시 당신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나요?

■교육공동체 나다 2018년 11월 휴머니즘 소개 마침■